

## 대학생의 직업흥미와 일상적 창의성 및 성격과의 관계\*

정은이(鄭殷伊)\*\*

###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오늘날 대학생들이 진로선택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진로와 관련된 개인 변인 중 직업 흥미가 일상적 창의성 및 성격 유형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첫째, Holland의 이론에 기초한 직업 흥미 유형과 일상적 창의성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관습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가지 유형과 의미있는 상관이 있었다. 그 중 예술형과의 상관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탐구형, 사회형, 기업형, 실재형 순이었다.

둘째, 직업 흥미 유형과 성격 요인과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 탐구형, 예술형의 경우 개방성과의 상관이 높았고, 사회형의 경우 외향성, 성실성과의 상관이 높았고, 기업형의 경우 외향성, 성실성과의 상관이 높았다. 또한 관습형의 경우 성실성과의 상관이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을 보였다.

셋째, 직업 흥미 유형에 대한 일상적 창의성 및 성격 유형의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본 결과 탐구형과 예술형은 일상적 창의성과 경험개방성이 공통적으로 설명해 주는 요인이었으며 또한 사회형, 기업형의 경우 성격 유형 중 외향성이 공통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갖는 요인이었고, 관습형의 경우 성실성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진로 및 취업을 고려할 때 적성, 가치관, 흥미뿐만 아니라 개인의 창의적인 성향 및 성격을 중요시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요어 : 직업 흥미, 일상적 창의성, 성격

\* 이 논문은 2006년도 청운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청운대학교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취업과 진로에 관한 부분이다. 어려워진 경제 사정과 혼란한 사회 현실 속에서 자신의 성격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 결정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자신의 직업적인 성격 유형과 흥미, 가치관, 적성,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공 및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직업 선택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각 대학에서는 진로 및 직업 상담을 강화하고 모의 면접과 각종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생 자신이 스스로 성격, 흥미, 적성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학생 생활 연구소 등에서 각종 직업 검사 및 성격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진로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지능, 적성과 같은 인지적 특성만을 과도하게 신뢰하기보다는 동기, 흥미, 성격, 가치관 등과 같은 정의적 특성까지 고려한 보다 다각적인 각도에서 개인의 특성을 탐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박보경, 이종승, 2002).

개인에게 있어서 직업과 관련된 정의적 특성 중 직업 흥미는 매우 중요한데, McCaulley(1978)는 만일에 사람들이 자신의 흥미 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에서 일하게 되거나 전공 영역에서 공부하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작업 환경을 찾아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고 하였다. Holland의 직업 흥미 이론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친숙한 활동이나 특정 직업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흥미는 몇 개의 범주로 나뉘질 수 있고, 한 개인이 특정 흥미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유형에 속하는 어떤 특정 직업에도 흥미를 함께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그 기본 가정이다. 이와 함께 한 개인의 흥미 유형과 직업과의 일치 또는 그만큼 개인의 인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가정을 갖게 됨으로써, 흥미는 능력 및 적성과 더불어 진로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다(허영운, 1998).

이러한 직업 흥미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두가지 변인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창의성'이다. 최근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2004)"이 발표되면서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정책의 역량이 결집되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정규, 2005). 이러한 때에 진로지도에 있어서 창의성을 중요한 개인 특성으로 다루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한 일일 것이다.

세계 속에서의 경쟁은 기업체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한 반응 중의 하나는 기업체에서 창의성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다. Munroe(1995)는 생산 원가의 70%가 상품 디자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디자인은 많은 생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업체에서는 종업원들에게 창의성을 교육시키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Clapham, 1997; Thakray, 1995). 이것은 고등교육 기관에서 창의성 훈련을 강화시키는 것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적인 직업 수행에 요구되는 기술을 습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teiner, 1998).

이렇듯 직업에서의 적응과 창의성은 오늘날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대학에서는 창의성 검사를 활용한 진로지도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업 흥미와 관련하여 창의성 검사가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 흥미와 관련된 또 다른 하나의 주목할만한 변인은 '성격'이다. 최근 개인의 성격과 직업적인 흥미간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관심은 직업심리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박경, 강문희, 2000).

Holland의 직업 흥미 검사와 성격 특성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Hogan과 Blake(1996)에 의하면, 성격과 흥미는 개념상의 차이를 갖고 있는데, 이들은 추상화 수준에서 흥미가 성격보다 더 구체적이며 흥미는 보다 구체적 대상과 관련되는 선택의 동기 측면이 반영된 개념인 반면, 성격은 흥미를 비롯하여 신념, 태도, 동기, 습관 등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하였다.

Gottfredson, Jones, 및 Holland(1993), Tokar와 Swanson(1995), Schinka, Dye, 및 Curtiss(1997)등은 성격과 흥미 이론의 관련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진로 상담과 같은 현실적인 장면에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성격과 직업 흥미 두 영역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주목할 만한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은 성격의 5요인 이론(Costa & McCrae, 1985)과 Holland의 직업 흥미 모형(Holland, 1973, 1985)이다.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서 성격 검사와 흥미검사는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하고 있으며(Hofstee, 1990; Hogan, 1983), 또 한편으로 성격과 흥미는 부분적인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어느 하나가 나머지를 모두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포괄성은 지니지 못한다는 연구도 많다(Peraino & Willerman, 1983; Goh & Leong, 1993; Kanfer, Ackerman, & Heggestad, 1996; Hogan & Blake, 1996; Gottfredson, Jones & Holland, 1993; Costa, McCrae, & Holland, 1984; Tokar & Swanson, 1995). 국내에서도 성격과 흥미 두 특질간의 상호관련성에도 불구하고, 각 특질이 고유의 독자적인 영역을 측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직업 상담 장면에서 개인에 관한 보다 충실하고 정확한 정보 획득을 위해서는 종전에 사용해 오던 흥미 검사 외에 성격 검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박동건, 김성훈, 허영운, 1999).

이러한 연구들은 흥미와 성격 검사가 진로 선택에 주는 의의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국내 연구가 드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직업적인 흥미의 측정이 우리에게 한 개인이 직업을 얼마만큼 좋아하는 지를 알려준다면 성격의

측정은 한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인 기술과 동기를 말해준다(박경, 강문희, 2000). 또한 창의성은 많은 직업들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창의적인 능력을 아는 것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직업 흥미와 성격 및 일상적 창의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진로지도 및 진로 상담의 영역을 넓히고, 예비 직업인으로서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흥미와 일상적 창의성 및 성격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 흥미 유형과 일상적 창의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직업 흥미 유형과 성격 유형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직업 흥미 유형에 대한 일상적 창의성과 성격 유형의 상대적 설명력은 어느 정도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직업 흥미 유형

흥미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활동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혹은 긍정적인 선택적 마음가짐이며 인간 행동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흥미를 갖는 대상에 대해서는 쾌감의 정서가 수반되고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열중하게 된다. 그러한 주의와 태도가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동기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하는 대상을 만나는 것은 집중적인 주의와 능동적인 태도를 촉진시키는 원천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려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 1998).

일의 능률과 성공을 가져오려면 인지적 요인뿐만 아니라 흥미나 동기와 같은 정의적 요인도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지적 요인이 일의 능률과 관련이 있다면 정의적 요인은 일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그 일에 대한 보람, 즐거움, 행복감 등을 가져다주는 즉 일에 대한 의미를 느끼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재창, 1996).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심리적 영역 내에서 흥미를 측정하는 것이 직업 상담에서 중요한 것으로 가정되고 있다. 직업 흥미란 여러 직종 가운데 어떤 특정 직종에 대하여 호의적이고 수용적인 관심과 태도를 갖는 것이다. Holland에 의하면 직업 선택은 타고난 소질과 여러 가지 문화적·개인적 요소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이병임, 정순례, 2003).

비록 직업 흥미와 직업 가치가 다양한 직업들 간의 의미로운 차별화를 할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Holland, 1978)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 선택의 지시자로서 직업의 가치와 직업적 흥미의 결합에 관한 유용한 자료는 없다(Pryor & Tylor, 1986). 따라서 직업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흥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Holland(1985)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특정한 성격이나 환경을 구성하는 수많은 변인의 영향을 받아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즉 진로선택은 특정 직업적 흥미 유형에 따른 직업 세계에서 성격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한 개인의 직업 선호도는 그의 적성, 성격, 흥미, 신체조건, 환경 여건 등 제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그 중에서 직업 흥미는 능력 변인과 함께 진로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 된다. Strong이나 Roe의 이론도 직업 흥미를 다루고 있으나 Holland는 경험적 자료들을 의미 있게 통합하였다(Holland, 1985).

Holland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실재형(Realistic), 탐구형(Investigative), 예술형(Artistic), 사회형(Social), 기업형(Enterprising), 관습형(Conventional) 등의 여섯가지 직업 선호유형 중의 하나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개인은 자신의 흥미 유형과 일치하는 작업 환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흥미 유형과 일치하는 작업 환경에서 일할 때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에 대한 평가,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 적성, 가치관 등의 삶의 많은 분야에서 각자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고 있는 바, 이런 여러 가지의 영역들에서의 상대적 우열성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흥미구조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평소에 좋아하는 활동 영역들, 자신이 잘한다고 지각한 활동 영역, 호감을 갖는 직업 종류,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분야나 과목을 통해 개인의 흥미 유형을 탐색한다. 한편 작업 환경의 흥미 유형은 해당 작업 환경에서 잘 생활하는 사람들의 흥미 유형을 반영하는 것이다.

개인의 흥미 유형과 작업 환경의 흥미 유형은 공통된 구성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람과 작업 환경을 같은 방식으로 분류해서 특정 개인과 특정의 작업 환경간의 조합으로 개인과 직업의 적합성을 맞추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사회형의 흥미 유형을 보이는 사람이 사회적 작업 환경과 결합될 때 그 개인은 직무 만족, 직업 안정성, 직업 성취 등과 같은 직업을 통한 행복감을 느낄 것이다.

각 여섯 유형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박경, 강문희, 2000).

**실재적(Realistic) 유형** : 이들은 추상적인 것보다는 확실한 것을 다루기 좋아하며 현재 지향적이다. 이들의 관심은 기계적인 능력과 관련이 있는 공구 다루기나 운동경기에 있고 옥외 활동을 선호한다. 예측하기 어려운 것보다는 확실하고 예측할 수 있는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노력한 결과를 예측, 확인 할 수 있는 일을 선호한다.

**탐구적(Investigation) 유형** :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추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좋아한다. 관찰이나 조사, 분석, 평가하기를 좋아하고 특별히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사고를 유발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들은 사회지향적인 경향을 선호하지 않으며 학문적, 과학적인 성공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다.

예술적(Artistic) 유형 : 심미적인 유형은 느낌에 지배되며 상상적이고 창조적인 세계를 지향한다. 이들은 심미적, 혁신적, 직관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으며 구조화된 작업 환경은 싫어한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미학에 관심이 많고 그림, 연극, 음악 등의 작품을 창조하는 일에 몰두하기를 좋아한다.

사회적(Social) 유형 :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탁월한 사회적 성격의 소유자로서 인간관계나 인간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사람들과 일하기 좋아하고 남들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훈련하는 일을 선호한다. 어떠한 방법을 모색하거나 과학적인 영역에 몰두하기 보다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을 좋아한다. 이런 특성들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을 촉진시키는 작업 환경을 선호한다.

기업인(Enterprising) 유형 : 이 유형은 정치적, 경제적인 영역을 도전하는데 관심이 많다. 이들의 대화는 설득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서 조직체를 관리하거나 조직의 목표를 이끌어 나가는 일을 선호한다. 다른 유형보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지배적이다. 이들은 새로운 도전을 가치있게 여기고 사회적인 권위나 경제력을 추구하고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다.

관습적(Conventional) 유형 : 관습적인 유형의 소유자는 규칙을 잘 따르고 자료를 가지고 일하기 좋아하며 사무적인 능력이나 숫자를 다루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많다. 타인의 지시를 기꺼이 따르고 세부 활동을 잘 수행한다. 막연하고 예측 불허의 상황은 좋아하지 않는다. 자료나 실제적인 상황을 잘 관리하고 관례에 순응하며 구조적인 환경에서 무리없이 잘 해낸다.

이와 같은 Holland의 직업 모형은 생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 직업 흥미 검사와 함께 최근 개인의 중요한 정보 자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고, 이 모형에 대한 타당성도 검증된 바 있다(Holland, 1985; 안창규, 2001). 국내에서는 Holland 검사가 학교, 상담실 등에서 개인 및 집단 상담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이와 관련된 논문 및 연구가 진척되어 왔다(심호규, 강문희, 2005; 문승태, 강남규, 2005; 이정희, 1996; 신영옥, 1998; 이병임·정순례, 2003; 이종승·박재조, 2002).

이러한 Holland의 이론에 바탕을 둔 Holland 진로발달검사는 직업분야를 나타내는 성격적 잠재적성인 직업적 흥미유형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Holland 검사는 여러 흥미 특성들을 직업 환경에 맞추어 분류된 6가지 진로 유형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흥미뿐만 아니라 직업 분야와 관련하여 창의성과의 연관을 살펴볼 수 있다. 더욱이 직업분야와 관련된 흥미 검사이기 때문에 '창의성의 영역적 특수성'을 살펴보는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최인수 외, 2005).

## 2. 직업 흥미 유형과 일상적 창의성 및 성격과의 관계

### 가. 직업 흥미 유형과 일상적 창의성

일상적 창의성은 Wallach와 Wing(1969)이 실생활의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비학문적 분야에서 재능 성취'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부터 시작하였다. 일상적 창의성(Everyday Creativity)이란 일이나 여가에서의 일상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창의적인 사람 혹은 창의적 산물, 아이디어, 행동을 일컫는다. 이는 새롭고 특이한 면, 즉 독창성과 타인에 대한 유의미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또한 생존 능력 또는 성장 발전을 지속시키는 동기로 볼 수 있는 일상적 창의성은 실질적으로 인간의 모든 활동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일상적 창의성은 특수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인지 양식이나 지향성, 적응성으로 우리 인생의 유연한 적응과 개인적인 행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Richards, 1999).

정은이(2002)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일상적 창의성(Everyday Creativity)을 일상생활에서 창의적인 사고와 성향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을 말하며 이는 개인의 적응과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내집단 구성원들에게도 행복감을 준다고 했다. 특히 전문적 창의성과 대비하여 일상적 창의성은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개인의 행복감 및 적응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 창의성에 관한 연구는 용어의 정의와 척도의 개발로부터 시작하였다(정은이, 박용한, 2002). 그 이후 일상적 창의성이 자기 존중감과 생활만족감과는 정적 상관, 대인불안과 고독감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는 결과, 즉 심리·사회적 적응과 높은 상관이 있다는 연구와(정은이, 2003), 일상적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정은이, 박용한, 2004).

이러한 연구들 중 직업 흥미와 관련된 연구는 드물지만 그 몇가지 주목할만한 결과들이 있다. 직업 성격유형과 적성 및 직업 가치관의 관계를 살펴본 박보경과 이종승(2002)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장형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운동능력, 손재능, 공간·시각능력, 창의력, 자연친화력은 높고 음악능력, 언어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탐구형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능력발휘, 발전성, 창의성, 자율성에 높은 직업가치를 두고 보수, 안정성, 더불어 일함에 낮은 직업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성과 Holland 직업적 성격유형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최인수 등(2005)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창의적 성격'은 6가지 직업성격 유형 모두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그 중 예술형과의 상관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업형, 탐구형 순이었다. 또한 '창의적 사고' 요인은 사회형을 제외하고 모든 직업성격유형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그 중 탐구형과의 상관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예술형, 기업형 순이었다. '창의적 동기' 요인은 탐구형, 예술형, 기업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인 반면 나머지 요인들과는 관련성이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볼 때 Holland의 이론에서 특히 탐구형이 창의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고, 예술형이나, 기업형도 창의성 요인들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나. 직업 흥미 유형과 성격

영국의 심리학자인 Eysenck는 성격을 환경에 대한 개인의 독특한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인격(character), 기질(temperament), 지성(intellect) 그리고 신체(physique) 요소들이 다소 안정적이고 영속적으로 조직화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Eysenck, 1970). 그는 미국의 특질 이론가들이 연구를 보완하면서 성격차원에 대한 탐색을 이상 행동의 분야까지 확장시켜 신경증과 같은 특성을 연구하면서, 세가지 유형 즉 내향성/외향성 그리고 안정성/신경증, 충동 통제/정신증 유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Cattell은 수많은 질문지, 객관적 검사 및 생활사로부터 얻은 자료를 통계적 및 수학적 분석하여 16개의 주요 성격요인(근원 특질)을 찾아내어 성격의 개인차를 수량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는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호감성, 성실성 등 이 5가지 요인들이 세월의 흐름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성격요인임을 밝혀 내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문승태, 강남규, 2005).

첫째, 외향성(Extraversion)은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외향성 요인과 관련된 특성들은 적극성, 사교성, 자기주장성, 활동성, 주도성, 집단성향성 등이 있다.

둘째, 호감성(Agreeableness)은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호감성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들은 정중하고, 협조적이고, 관대하고, 양보심이 많고, 인내심이 많고, 세심한 배려를 해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타적인 특성을 지닌다.

셋째,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들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를 나타낸다. 성실성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신중하고, 철저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계획성이 있고, 신뢰감을 주는 특성을 나타낸다.

넷째, 신경증(Neuroticism)은 자신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세상을 얼마나 통제하기 힘든지, 그리고 세상을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신경증 차원은 걱정이 많고, 긴장되어 있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번덕이 심하고 의기소침하고, 까다롭고, 화를 잘 내는 것 등이다.



다섯째, 개방성(Openness)은 지적 자극,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개방성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교양이 풍부하고,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에 개방적이고, 지적으로 민감한 특성을 지닌다.

성격의 5요인 이론(Five Factor Model)은 다양한 성격 이론들을 근거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성격검사 결과들을 경험적으로 통합해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5요인 이론은 가장 적은 수의 성격차원들로 효율적으로 성격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이론이 되었다. 이 다섯 가지 성격차원으로 정서, 대인관계, 경험, 태도, 동기 유형 등의 다양한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여러 연구자들은 5요인 이론이 개인의 성격에 대한 안정된 정보를 제공해주므로, 개인차와 관련된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고 있다(박동건, 김성훈, 허영운, 1999).

그동안 성격유형에 따른 직업 흥미간의 국내 연구는 주로 MBTI 검사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교직 수강생의 MBTI 성격 유형과 직업 흥미 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외향/내향과 사회형과 기업형과의 관련성이 높았고, 감각/직관은 예술형이 유의하게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현주, 2004). 전문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병임과 정순례(2003)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외향/내향 지표는 예술형, 사회형, 설득형과 부적 상관관계를, 감각/직관 지표는 탐구형, 예술형과 정적 상관관계를, 사고/감정 지표는 실재형, 탐구형과 부적 상관관계를, 판단, 인식 지표는 예술형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최기혜(1993)는 성격유형과 직업흥미와의 관계의 연구에서 외향형은 설득적 흥미에, 감각형은 실무적 흥미에, 사고형은 실무적 흥미와 설득적 흥미에, 감정형은 예술적 흥미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허선자(1995)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향형은 설득적 흥미, 예술적 흥미 및 문학 적 흥미가 높고 직관형은 문학적 흥미와 예술적 흥미, 설득적 흥미 및 사회봉사적 흥미가 높으며, 인식형은 문학적 흥미와 예술적 흥미가 높고 감정형은 사회봉사적 흥미와 예술적 흥미가 높았다.

흥미유형과 성격 5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Tokar와 Swanson(1995)이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예술형은 개방성과, 사회형과 진취형은 외향성과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Holland, Johnston 및 Asama(1994)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계가 나타났으나 진취형은 정서불안과 부적으로 관련되었다. Hogan과 Blake(1996)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성격의 외향성은 흥미의 사회형 및 진취형과, 호감성은 사회형, 진취형 및 현실형(-)과, 성실성은 관습형과, 마지막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예술형 및 진취형과 관계 있다고 하였다. Gottfredson, Jones 및 Holland(1993)의 연구에서는 사회형과 진취형의 흥미 유형은 성격의 외향성과, 탐구형 및 예술형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마지막으로 관습형은 성실성과 관련된다고 결론지었다.

국내에서는 안창규(1996)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흥미유형과 성격 5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예술형은 개방성과, 사회형은 외향성, 친화성과 그리고 관습형은 개방성 및 성실성과 유의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건, 김성훈, 허영운(1999)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남녀별로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외향성이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과 성실성은 관습형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예술형과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외향성은 진취형과 호감성은 사회형과, 성실성은 진취형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예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개방성이 높으면 탐구, 예술, 기업가적인 직업을 선호하고, 외향성이 높으면 예술, 사회, 기업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실성이 높으면 탐구, 기업, 관습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승태, 강남규, 2005).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S대학교와 C대학교 학생들로서 교양과정으로 '심리학 개론'을 듣는 학생 250명이다.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하였거나 무선적으로 답한 19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231명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은 1·4학년 학생들로서 교양강의의 특성상 인문·사회, 이공계열, 예술계열, 경상계열 학생들이 골고루 참여한 수업이다. 피험자들은 수업 중에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현황

피험자		N(231)	%
성별	남	129	55.8
	여	102	44.1
학년	1	54	23.4
	2	62	26.8
	3	59	25.5
	4	56	24.3
전공	인문사회 계열	64	27.7
	이공 계열	57	24.6
	예술 계열	49	21.2
	경상 계열	61	26.4

## 2. 측정 도구

### 가. 일상적 창의성 검사

일상적 창의성 검사는 정은이(2002)가 개발한 것으로 대학생 및 성인을 위한 것이다. 이 검사는 총 36문항으로 독창적 유연성 8문항, 대안적 해결력 5문항, 모험적 자유추구 5문항, 이타적 자아확신 6문항, 관계적 개방성 6문항, 개성적 독립성 3문항, 탐구적 몰입 3문항 등이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채점 문항 3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검사는 총점이 높을수록 일상적 창의성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독창적 유연성 .84, 대안적 해결력 .61, 모험적 자유추구 .72, 이타적 자아확신 .68, 관계적 개방성 .68, 개성적 독립성 .67, 탐구적 몰입 .64 이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척도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82이다.

### 나. 노동부-흥미 검사

노동부 직업 선호도 검사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위한 직업 심리검사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는 흥미검사, 일상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성향을 측정하는 성격 검사, 과거와 현재의 개인 생활 특성을 측정하는 생활사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김계현 외, 2004). 본 연구에서는 이 세가지 검사를 모두 포함한 L형(Long form) 검사를 사용했으며 그 중 흥미 검사만을 연구에 이용하였다. 총 6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인터넷(www.work.go.kr)을 통해 검사하고 자동 채점하여 나온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 검사는 인간의 삶의 양식에 따른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어서 진로지도 및 상담의 실제에 널리 적용되어 온 Holland의 직업적 성격유형론에 바탕을 두고 개발된 직업 흥미 검사(1998)이다. 이 흥미 검사는 노동부에서 고려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에 의뢰해 제작된 것으로 5개의 영역(활동, 유능성, 직업, 선호분야, 일반성향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6개의 각 흥미 유형별(실재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로 5개 척도에서 얻은 값을 합하고 이를 규준에 비추어서 환산점수를 구한다. 이 검사도구의 재검사 신뢰도는 .80 정도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준거관련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1998).

### 다. 성격 검사(NEO-PI)

Costa와 McCrae(1992)는 성격 특질 이론적 관점에서 5개의 성격 특성 즉, 신경증,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호감성, 성실성 각각에 대해 12 문항씩 60문항으로 구성된 간편형 성격 검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안창규와 채준호(1997)가 한국형으로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하위 척도가 5개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요인별로 12개의 문항씩 전체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험자가 각 문항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 태도, 행동 등을 고려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사이에 반응하는 자기 보고식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신경증 .89, 외향성 .81, 개방성 .80, 호감성 .79, 성실성 .78로 나타났다.

### 3. 자료 처리 및 분석

직업 선호도 검사와 일상적 창의성 척도 및 성격 검사와의 Pearson's  $r$  상관분석 및 다중 회귀 분석을 위해 SPSS 10.0 판을 이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일상적 창의성과 직업 흥미 유형 및 성격과의 상관 관계

먼저, Holland의 직업 흥미 유형(R.I.A.S.E.C)과 일상적 창의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하였다.

<표 2> 직업 흥미 유형과 일상적 창의성과의 상관

	실재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	일상창의합
실재형							
탐구형	.452***						
예술형	.404***	.477***					
사회형	.272***	.411***	.446***				
기업형	.246**	.295***	.322***	.607***			
관습형	.118	.387***	.114	.357***	.418***		
일상창의합	.311***	.430***	.511***	.429***	.341***	.139	

\*  $P < .05$ , \*\*  $P < .01$ , \*\*\*  $P < .001$

<표 2>에서 보여지듯이, Pearson's r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업흥미 유형 중 관습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개의 유형이 일상적 창의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예술형이 가장 높은 .51의 상관을 보였고, 그 다음이 탐구형 .43, 사회형 .42, 기업형 .34, 실재형 .31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 흥미 유형과 성격요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하였다.

<표 3>에서 보여지듯이, Pearson's r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재형은 외향성과 .18, 성실성과는 .20의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다. 탐구형의 경우는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개방성은 가장 높은 .35의 상관을 보였고, 성실성이 그 다음으로 .28의 상관을, 외향성은 .16의 상관을 보였다. 예술형의 경우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이중 개방성이 가장 높은 .58의 상관을, 그 다음으로 외향성이 .29, 성실성이 .27의 상관을 보였다. 사회형의 경우 신경증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외향성이 가장 높은 .47의 상관을, 그 다음으로 성실성이 .38, 호감성이 .36, 개방성이 .33의 상관을 보였다. 기업형의 경우 호감성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그 중 외향성이 가장 높은 .57의 상관을 성

<표 3> 직업 흥미 유형과 성격 요인의 상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 실재형											
② 탐구형	.394***										
③ 예술형	.291***	.346***									
④ 사회형	.245***	.273***	.369***								
⑤ 기업형	.197**	.187**	.218**	.549***							
⑥ 관습형	.133*	.333***	.058	.315***	.399***						
⑦ 외향성	.184*	.165*	.290***	.479***	.574***	.113					
⑧ 호감성	-.009	.119	.147*	.365***	.030	.022	.208**				
⑨ 성실성	.201**	.287***	.278***	.386***	.532***	.462***	.561***	.258***			
⑩ 신경증	-.082	-.134	.012	-.125	-.266**	-.060	-.337***	-.315***	-.432***		
⑪ 개방성	.115	.355***	.584***	.338***	.280***	.138	.477***	.248**	.485***	-.057	

\* P<.05, \*\* P<.01, \*\*\* P<.001

실성이 .53, 개방성이 .28, 신경증이 -.26의 상관을 보였다. 관습형은 성실성 한가지 변인만 .46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 2. 직업 흥미 유형에 대한 일상적 창의성 및 성격의 상대적 설명력

직업 흥미 유형이 일상적 창의성 및 성격 유형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고 예언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 흥미 유형을 종속변인으로 일상적 창의성과 성격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직업 흥미 유형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상적 창의성이 실재형과 탐구형, 예술형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재형의 경우, 일상적 창의성만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고 있었으며, 설명량은 8.5%( $t=3.997$ ,  $p<.001$ )였다. 탐구형의 경우, 개방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설명량은 13.1%( $t=3.549$ ,  $p<.001$ )이었고, 그 다음은 일상적 창의성으로 설명량은 3.6%( $t=2.725$ ,  $p<.001$ )였다. 예술형의 경우, 역시 개방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설명량은

<표 4> 일상적 창의성과 성격유형이 직업 흥미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독립 변인	$\Delta R^2$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베타	t	F	$R^2$
			B	표준오차				
실재형	(상수)		24.889	5.724		4.348***	15.975***	.085
	일상적 창의성	.085	.177	.044	.292	3.997***		
탐구형	(상수)		18.192	5.920		3.073***	17.181***	.167
	개방성	.131	.251	.071	.273	3.549***		
예술형	(상수)		8.592	5.459		1.574*	51.276***	.375
	개방성	.340	.484	.065	.496	7.439***		
사회형	(상수)		17.600	3.764		4.676***	40.949***	.324
	외향성	.255	.415	.060	.444	6.875***		
기업형	(상수)		20.897	3.275		6.381***	56.743***	.399
	외향성	.322	.379	.068	.391	5.548***		
관습형	(상수)		23.813	6.353		3.748***	20.179***	.250
	성실성	.208	.555	.072	.625	7.658***		
	외향성	.034	-.182	.073	-.197	-2.501*		
	신경증	.021	.160	.073	.158	2.188*		

34.0%( $t=7.439$ ,  $p<.001$ )이었고, 그 다음은 일상적 창의성으로 설명량은 3.5%( $t=3.078$ ,  $p<.01$ )였다.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은 일상적 창의성이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성격 유형만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회형의 경우, 외향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설명량은 25.5%( $t=6.875$ ,  $P<.001$ )이었고, 그 다음은 호감성으로 설명량은 6.9%( $t=4.164$ ,  $p<.001$ )이었다. 기업형의 경우, 역시 외향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설명량은 32.2%( $t=5.548$ ,  $p<.001$ )이었고, 그 다음은 성실성으로 설명량은 7.7%( $t=4.668$ ,  $p<.001$ )이었다. 관습형은 성실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설명량은 20.8%( $t=7.659$ ,  $p<.001$ )이었고, 그 다음이 외향성으로 설명량은 3.4%( $t=-2.501$ ,  $p<.05$ ),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증이 2.1%( $t=2.188$ ,  $p<.05$ )의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오늘날 대학생들이 진로선택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진로와 관련된 개인 변인 중 직업 흥미가 일상적 창의성 및 성격 유형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업 흥미 유형과 일상적 창의성 및 성격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Holland의 이론에 기초한 직업 흥미 유형과 일상적 창의성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관습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가지 유형과 의미있는 상관이 있었다. 그 중 예술형과의 상관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탐구형, 사회형, 기업형, 실재형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Holland의 직업 흥미 유형과 창의성과의 관련성이 높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이며 특히 예술형, 탐구형, 사회형 등과의 관련성이 중요함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창의성 상위 30%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인수 등(2005)의 연구에서는 '창의적 성격' 요인에서는 6개의 흥미 유형 모두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창의적 사고' 요인에서는 사회형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요인과 '창의적 동기 요인'에서는 탐구형, 예술형, 기업형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와 위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창의성과 직업흥미유형간의 상관에서, '탐구형' 및 '예술형'의 성격 유형과 창의성 요인들과의 관련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최인수 등(2005)이 언급했듯이 직업적 흥미 유형 분류에 있어서 탐구형이 학문(과학) 분야에, 예술형은 예술 분야에 적합한 성격 특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분야에서 창의

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일상적 창의성은 대인관계와 개방성, 자아확신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따라서 사회형과의 관련성도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직업 흥미 유형과 성격 요인과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 탐구형, 예술형의 경우 경험개방성과의 상관이 높았고, 사회형의 경우 외향성, 성실성과의 상관이 높았고, 기업형의 경우 외향성, 성실성과의 상관이 높았다. 또한 관습형의 경우 성실성만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Gottfredson, Jones 및 Holland(1993)의 연구와 문승태와 장남규(2005)의 연구에서 탐구형, 예술형이 공통적으로 개방성과 상관이 높게 나타났으며, 관습형의 경우 성실성과 상관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탐구적인 유형은 문제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예술적인 유형은 상상적이고 창조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열린 작업 환경을 좋아하는 경우로 지적 자극이나 변화,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험 개방적인 성격이 적합할 것이다.

또한 사회형의 경우 사회적 성격으로 좋은 인간관계 맺기를 추구하므로 사교적이며 적극적이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외향성과 사회적 규범 등을 잘 지키려는 성실성이 유리한 성격유형이 될 것이다.

기업형의 경우는 조직체를 관리하거나 조직의 목표를 이끌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유형으로 야망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자기주장성, 주도성을 원하는 외향성의 성격이 적합할 것이다. 관습형의 경우는 타인의 지시를 잘 따르고 수행하는 구조적인 환경에 순응하는 유형으로 역시 규칙을 지키며 열심이 일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실성이 적합한 성격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직업 흥미 유형에 대한 일상적 창의성 및 성격 유형의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탐구형과 예술형은 일상적 창의성과 경험개방성이 공통적으로 설명해 주는 요인이었으며 이는 직업 흥미 유형 중 탐구형과 예술형의 두 유형의 경우 일상적 창의성 및 경험 개방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직업 선택에 있어서 학문적 과학적인 직업 또한 작품을 창조하는 예술 분야의 직업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은 일상적 창의성이 높고 개방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적합할 것이다.

또한 사회형, 기업형의 경우 성격 유형 중 외향성이 공통적으로 높은 설명량을 갖는 요인이었으며, 이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정치·경제적인 영역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적극적이며 사교적인 외향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유리할 것이다.

관습형의 경우, 성실성이 가장 높은 설명량을 가진 요인이었으며, 이는 구조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사무직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신중하고 신뢰감을 주며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직업 안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응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바탕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탁진국, 2003). 먼저 개인에게 직업 흥미 검사와 성격 5요인 검사를 실시한 후 두 검사간의 관계가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지를 살펴본다. 만약 관계가 유사하다면, 예를 들어 흥미 유형 중에서 기업형 흥미가 강하고 성격 유형 중에서 외향성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흥미와 성격이 서로 일치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가 쉽게 된다. 다음으로 일상적 창의성 검사를 실시하여 평균 이상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면 기업형과 관련된 직업 중 보다 창의성을 많이 요구하는 직업을 선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파악한 직업은 개인의 흥미와 성격 및 창의성 차원에서 모두 일치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좀 더 적합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반면에, 개인에게 실시한 흥미와 성격 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관계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상관 추세와 다를 경우, 예를 들면 흥미 유형에서 관습형 흥미가 강하고 성격 유형에서 외향성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이는 흥미와 성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흥미 뿐 아니라 성격에도 적합한 직업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이 경우, 창의성 검사 점수가 낮다면 관습형과 관련된 직업 중에서 시간을 갖고 폭넓은 탐색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먼저 직업 흥미검사를 실시한 후 가능한 직업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 뒤 각 직업 별로 개인의 성격 유형 및 창의성과 관련시켜 탐색해 가면 개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진로 및 취업을 고려할 때 적성, 가치관, 흥미뿐만 아니라 개인의 창의적인 성향 및 성격을 중요시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흥미검사는 직업 선택과 관련된 예측을 하는데 효과적이며 성격검사는 직업 선택 후 수행수준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도구(박동진, 김성훈, 허영운, 1999)이며 일상적 창의성 검사는 개인의 창의적인 성향을 알아내 적합한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 대학생들의 진로 지도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결론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창의성 검사를 사용했으나, 이 외에 다양한 창의적 능력 검사와 성격 검사를 활용하여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직접 수행해 보게 하는 창의적 산물 검사나 인터뷰를 통한 창의적 성취를 중심으로 연구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창의성의 영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창의성 영역별로 직업 흥미 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창의성 연구의 쟁점이 되고 있는 '창의성의 영역 특수성'에 따른 창의성 요인들과 직업 흥미 및 성격과의 관련을 고려하는 것

은 매우 흥미있는 연구 주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특정 대학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후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넷째, 직업 흥미와 성격과의 관련성을 살펴 본 기존 연구들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보고한 결과들(탁진국, 2003; 박동건 외, 1999; Costa, McCrae, & Holland, 1984)이 있어 이에 대한 추후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1998). 직업선호도 검사. 서울:한국노동연구원.
- 김계현·황매향·선혜연·김영빈(2004). 상담과 심리검사. 서울:학지사
- 문승태·강남규(2005). 중학생의 성격과 Holland의 직업흥미유형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제 18 권 제 1 호. 86-97.
- 박경·강문희(2000). MBTI 성격 유형과 Holland의 직업적 유형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 12 권 제 1 호. 109-125.
- 박동건·김성훈·허영운(1999). Holland 흥미 모형과 5요인 성격 모형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산업 및 조직. 제 12 권 제 1 호. 95-112.
- 박보경·이종승(2002). 직업성격유형과 적성 및 직업가치관의 관계. 교육발전논총. 제 23 권 제 2 호. 59-83.
- 신영옥(1998). Holland의 직업적 성격유형과 MBTI에 의한 심리유형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호규·강문희(2005). 고등학생의 MBTI 성격유형과 Strong 직업 흥미의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 12 권 제 3 호. 245-266.
- 안창규(1996). 진로 탐색 검사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제 8 권 제 1 호. 169-199.
- 안창규(2001). 진로 및 적성 탐색 검사의 해석과 활용. 서울:한국 가이던스.
- 안창규·채준호(1997). NEO-PI-R의 한국 표준화를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제 9권 제 1 호. 443-472.
- 이병임·정순례(2003). 전문대 여학생의 MBTI 성격 유형 및 Holland 직업 선호도 유형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 17 권 제 2 호. 127-145.
- 이재창(1996). 교육개혁안에 따른 대학교 진로교육실천 방향. 진로교육연구, 제 5 권, 83-108.
- 이정규(2005). 대학생의 창의성과 작업선호도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 19권 제 2 호. 413-432.
- 이정희(1996). Holland 이론에 의한 우리나라 인문계 고등학생의 성격 유형과 진로 선택.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종승·박재조(2002). 직업성격유형 및 직업환경유형과 MBTI 선호 경향성의 관계분석. 교육심리연구. 제 16 권 제 3 호. 161-179.

- 정은이(2002). 일상적 창의성과 개별성-관계성 및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은이(2003). 일상적 창의성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교육문제연구* 제 18 권. 고려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103 - 120.
- 정은이·박용한(2002). 일상적 창의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문제 연구* 제 17 권. 고려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155-183.
- 정은이·박용한(2004). 일상적 창의성과 대학생의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 양식과의 관계. *교육학 연구* 제 42권 제 4호. 379-399.
- 조현주(2004). 교직 수강생의 진로결정수준과 MBTI 성격 유형 및 직업흥미유형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제 17 권 제 2호. 44-59.
- 최기혜(1993). 성격유형에 따른 직업흥미와 지각된 유능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인수·이현주·이화선(2005). 아동의 창의성과 성격 및 지능간의 관계: 창의성 검사, Holland 검사, Raven 검사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제 19 권 제 1 호. 135-157.
- 탁진국(2003). 직업 안내를 위한 흥미와 성격의 통합: Strong 흥미 검사와 MBTI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제 16권 제 3 호. 59-74.
- 한덕웅·이기범, Ashton, J. W. (1999). A factor analysis of the most frequently used Korean personality trait adjectiv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3, 261-282.
- 허선자(1995). 청소년 심리유형에 따른 직업 흥미와 지각된 유능감.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영운(1998). 성격의 5요인 모형과 흥미의 Holland 모형론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lapham, M. M. (1997). Ideational skills training: a Key element in creativity training programs,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0, pp. 33-44.
- Costa, P. T. Jr, McCrae, R. R., & Holland, J. L. (1984). Personality and vocational interests in an adult sampl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9, 390-400.
- Costa, P. T. Jr., & McCrae, R. R. (1985). *The NEO PI: Manual Form S and Form R*.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osta, P. T. Jr., & McCrae, R. R. (1992). *NEO-PI-R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Eysenck, H. J. (1970). *The Structure of Human Personality* (3rd ed.). London: Methuen.
- Goh, D. S., & Leong, F. T. L.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Holland's theory of

- vocational interests and Eysenck's model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5, 555-562.
- Gottfredson, G. D., Jones, E. M., & Holland, J. L. (1993). Personality and vocational interests: The relation of Holland's six interest dimensions to five robust dimen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518-524.
- Hofstee, W.K.B. (1990). The use of everyday personality language for scientific purpos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4, 77-88.
- Hogan, R. (1983). Socioanalytic theory of personality. In M. M. Page (Ed.), *1982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Personality- current theory and research* (pp. 55-89).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Holland, J. L. (1973).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careers*. Englewood Cliffs, N. J.:Prentice-Hall.
- Holland, J. L. (1978). *Manual for the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Holland, J. L. (1985).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 Holland, J. L., Johnston, J. A., & Asama, N. F. (1994). More evidence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Holland's personality types and personality variabl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 331-340.
- Kanfer, R., Ackerman, P.L., & Heggstad, E.D. (1996). *Motivational skills and self-regulation for learning: A trait perspective*.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8, 185-209.
- McCaulley, M. H. (1978). *Application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to medicine and other health professions*(Monograph 1). Gainesville, FL: Center for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ype.
- Munroe, A. S. (1995). Is your design a life sentence?, *Machine Design*, 26 January, p.156.
- Peraino, J. M., & Willerman, L. (1983). Personality correlates of occupational status according to Holland typ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268-277.
- Pryor, R. G. & Taylor, N. B. (1986). On combining scores from interest and value measures for counseling. *The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4(2), 178-187.
- Richards, R. (1999). *Everyday Creativity*. Encyclopedia of Creativity. Volume 1. Academic Press.

- Saucier, G. & Goldberg, L. R. (1996). Evidence for the Big Five in analyses of familiar English personality adjectiv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0*, 61-77.
- Schinka, J. A., Dye, D. A., & Curtiss, G. (1997). Correspondence between Five-Factor and RIASEC Model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8*, 355-368.
- Steiner, C. J. (1998). Educating for innovation and management: the engineering educators' dilemm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ngineering Education Transactions in Education, 41*, pp. 1-7.
- Thakray, J. (1995). That vital spark (creativity enhancement in business), *Management Today*, July, pp. 56-58.
- Tokar, D. M., & Swanson, J. L. (1995). Evaluation of the correspondence between Holland's vocational Personality typology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6*, 89-108.
- Wallach, M. A., & Wing, C. W. (1969). *The Talented Student*,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 논문접수 2006년 5월 10일 / 1차 심사 2006년 6월 12일 / 2차 심사 2006년 9월 12일

\* 정은이: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와 교육학 박사(교육심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청운대학교 교양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 e-mail: jejei@chungwoon.ac.kr

## Abstract

##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vocational interest, everyday creativity, and personality

Jeong, Eun-I\*

This study has explored how college students' vocational interest as one of personal career-related variables is related to their everyday creativity and personality type in the time when many of them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job search and decision.

First, the correlations between everyday creativity and Holland's vocational interest types have show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everyday creativity and five types of vocational interest (realistic, investigative, artistic, social, and enterprising types) except the conventional type. Among them,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everyday creativity was found in the artistic type, and then the correlation was high in investigative, social, enterprising, and realistic types in descending order.

Second, the correlations between vocational interest types and personality factors have shown that the investigative type and the artistic type have high correlations with openness, while the social type and the enterprising type have high correlations with extroversions and conscientiousness. In addition, the result has indicated that the conventional type has a high correlation only with conscientiousness.

Third, relative contributions of everyday creativity and personality factors to vocational interest types has also offered interesting results. The investigative type and the artistic type were explained more by everyday creativity and openness, while the social type and enterprising type were explained more by extroversions. And the conventional type was explained more by conscientiousness.

In conclusion, these results imply that we should consider the importance of college

---

\* Chungwoon University

students' creativity and personality in addition to their aptitude and value system for career counseling.

Key words: vocational interest, everyday creativity, personality